

전남과학대 김동현 아시아볼링 '금 스트라이크'

광주시청 박건하는 2인조 '동' 한국 개막 3일 만에 금·동 2 아시아선수권 순조로운 출발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전남과학대 김동현(가운데).



남자 2인전에서 동메달을 딴 박건하(광주시청·왼쪽)와 박동혁(한국체대). <대한볼링협회 제공>

김동현(전남과학대 2년)이 제26회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2일 대한볼링협회에 따르면 김동현은 지난 10일 홍콩 SCAA볼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개인전에서 6경기 총합 1605점을 획득해 경쟁자인 라피크 이스마일(1579점), 아흐마드 무아즈(1575점·이상 말레이시아)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김동현은 2021년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낸 대학부 최강자다.

백승자(구미시청)·정다운(대전광역시청)도 여자 2인조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6경기 합계 2903점을 얻었다.

대프니 탄과 세리 탄(이상 싱가포르)이 끝까지 경쟁했지만, 2천797점을 얻는 데 그쳐 백승자·정다운 조에 금메달을 내줬다.

각각 10일과 11일 열린 여자 개인전의 황연주(횡성군청)와 남자 2인조에 출전한 박건하(광주

시청)·박동혁(한국체대) 조는 동메달을 땀다. 황연주는 6경기 총합 1459점, 박건하·박동혁 조는 2918점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가대표 선수단은 대회 개막 사흘 만에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대회 전반부를 마친 조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인조, 5인조, 마스터스, 개인종합까지 4개 중

목을 남겨두고 있다. 대표팀은 18일까지 예정된 대회 일정을 마친 후 19일 귀국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생활체육 동호회 가입 1위 축구·풋살... 2위 골프

생활체육 동호회 가입 1순위 종목은 축구·풋살이며 골프가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12일 발표한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2021년 9월~2022년 9월 기준)를 보면,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1.2%로 전년 조사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의미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30대 인구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직전 조사보다 7.8% 포인트 오른 6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우리 국민은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하고 싶은 운동으로 수영(9.2%)을, 돈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운동으로 골프(16.2%)를 첫 순위로 각각 꼽았다.

체육 동호회(학교 동아리·스포츠클럽 포함) 가입률은 16.9%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가장 많이 가입한 종목은 축구·풋살(18.4%), 골프(16.7%), 배드민턴(9.7%), 볼링(7.7%), 테니스(7.1%) 순이다.

다만, 1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52.6%로 평균에 못 미쳤다. /연합뉴스



안세영 가법게 8강 진출 안세영이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악시아타 아레나에서 열린 2023 말레이시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고진웨이(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스매싱을 하고 있다. 안세영이 고진웨이를 2-0(21-10 21-12)으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권순우 ATP 투어 단식 4강 진출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테니스

권순우(84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총상금 64만2735 달러) 단식 4강에 올랐다.

권순우는 12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단식 3회전에서 미카엘 이메르(77위·스웨덴)를 2-0(6-1 6-2)으로 완파했다.

권순우의 4강 상대는 잭 드레이퍼(40위·영국)다.

권순우는 지난주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드레이퍼에 0-2(2-6 1-6)로 졌다.

권순우가 ATP 투어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한 것은 지난해 10월 일본오픈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번 대회에서 권순우는 행운이 따랐다.

예선 결승에서 토마시 마하치(115위·체코)에게 져 본선 진출이 좌절될 판이었으나, 본선에 불참 선수가 생긴 덕에 '러키 루저'로 본선에 합류해 4

강까지 올라갔다. 이번 4강 진출로 권순우는 다음 주 세계 랭킹 73위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2회전에서는 세계 랭킹 15위 파블로 카레뇨 부스타(스페인)를 2-1(3-6 6-4 6-4)로 꺾는 등 최근 상승세가 돋보인다.

권순우는 이날 최고 시속 207km에 이르는 서브를 앞세워 서브 에이스 5-1 우위를 보였고, 공격 성공 횟수도 20-6으로 압도했다.

이번 대회는 권순우 경기 등 주요 경기를 스포츠 전문 채널 tvN 스포츠에서 생중계한다.

한편 권순우는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 본선 1회전에서 크리스토퍼 유앵크스(123위·미국)와 만나게 됐다.

권순우는 지난해 유앵크스와 한 차례 격돌해 2-1(7-6(8-6) 1-6 6-4)로 이겼다. 권순우가 1회전을 통과하면 2회전에서는 보르나 초리치(23위·크로아티아)-이르지 레헤츠카(78위·체코) 경기 승자를 만나는 대진이다. /연합뉴스



권순우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청송에서 13~15일 열려

17개국 선수 100여명 출전

대한산악연맹과 국제산악연맹이 주최하는 2023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아시아선수권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경북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아이스클라이밍 남자 리드 세계랭킹 1위 라우나 라드반트(프랑스)와 5위 모하마드 레자 사프다리안(이란) 등 세계 최정상급 아이스클라이머와 한국 아이스클라이밍 남녀 간판 박희용, 신윤선 등 17개국 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13일에는 개회식을 열고, 14일 남녀 리드 예선과 준결선, 15일 남녀 리드 결선, 스피드 예선과 결선이 펼쳐진다. /연합뉴스



중력을 거스리며 2023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아시아선수권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북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영웅
- 2관 아바타: 물의 길
- 3관 아바타: 물의 길, 해시태그 시그네
- 4관 스위치
- 5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6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7관 아바타: 물의 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장화신은 고양이
- 8관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 9관 영웅, 스위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10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쟈플랜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